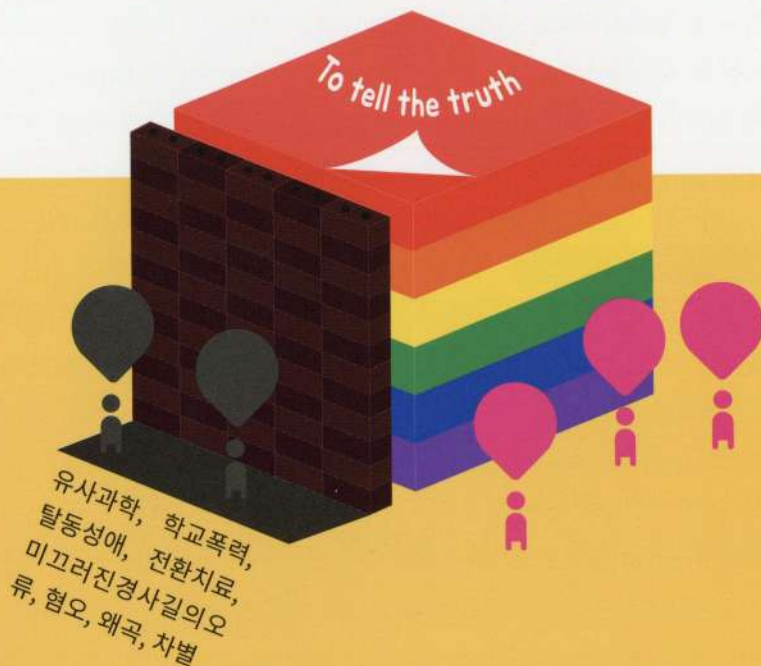


동성애, 차별금지법, 에이즈...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른 진실들



유사과학, 학교폭력,
탈동성애, 전환치료,
미끄러진경사길의오
류, 혐오, 왜곡, 차별

바른정보연구소

2018

목차

미끄러진 경사길의 오류	1
유사과학과 혐오	2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조언	8
학교 폭력과 동성애 혐오	10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의 조언	16
탈 동성애의 위험성	18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	28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	30
아직 차별금지법은 없다	38
퀴어 퍼레이드의 역사	45
어느 동성애자 크리스천의 고백	50
혐오할 권리란 없다	52
한국인의 인식 변화	56

바른정보연구소

왜곡된 거짓 정보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 의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연락처: totellthetruth@naver.com

홈페이지: totellthetruth.blog.me

책자집필진: 경은, 나영, 다림, 루인, 마쯔, 몽실, 선미, 은오, 연진, 조연, 종혁, 준우, 터울, 채윤

* 본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책자는 무료이며 배송료만 착불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책자신청: totellthetruth@naver.com

차별을 금지하면 동성애가 조장된다? 동성애자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자가 된다?

‘미끄러진 경사길의 오류’에 빠진 논리를 구출하라!

“동성 결혼 인정 → 결혼 제도의 가치와 근본 무너짐 →
근친 결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도 모두 허용 → 한국 사회 붕괴”

이런 주장을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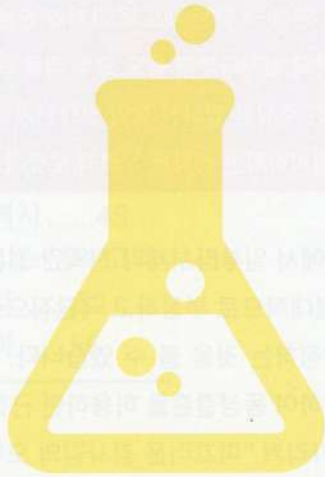
듣기에 그럴싸하지만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일부다처제나 친족간 결혼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며, 동성애 자체를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극단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들에서 오히려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애당초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굳이 연결하여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근친 결혼까지 허용하게 된다는 이런 식의 주장을 가리켜 “미끄러운 경사길의 오류 (fallacy of slippery slope)” 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지나치게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인데, 미끄럼틀과 같은 곳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쭉 가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이름입니다. A를 받아들이면 이것과 비슷해 보이는 B도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그럼 또 비슷한 C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렇게 가다보면 마침내 Z까지 받아들여지게 되니 아예 A를 허용하지 말자는 극단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A와 B는 정말 유사한지, 왜 유사한다고 느끼는지, A와 B사이에 합리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소책자에서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현재 시중에 무작위로 유통되고 있는 과장된 자료, 왜곡된 근거, 거짓 정보들을 하나씩 바르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동성애 혐오, 또 하나의 유사과학



현대에 접어들어 ‘과학’이라는 이름이 점차 사회적으로 권위를 얻어가면서, 그 이름에 편승하여 자신들만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른바 ‘**유사과학**’(혹은 ‘의사과학’, ‘pseudo-science’)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바로 과학의 ‘이름’과 ‘모양’을 빌리고 있으나, 정작 제대로 된 과학이라고 볼 수 없는 시도들을 말한다. 그리고 **동성애 혐오진영이 ‘과학’ 혹은 ‘의료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유포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유사과학’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

유사과학이란? 바로 가짜과학

과학의 핵심은 바로 ‘**과학적 방법론**’이다. ‘과학적 방법론’은 관찰을 통하여 가설을 세우고, 실험 혹은 관측을 통하여 이 가설을 검증해가며 이론체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비로소 ‘과학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유사과학들의 경우,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연구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미리 정해둔 ‘결론’에 ‘과정’을 끼워 맞추며 과학적 방법론을 왜곡, 오용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인 듯 하지만 과학이 아닌, ‘유사’과학인 것이다.

...

특징1 대중들을 현혹한다

이러한 유사과학은 과학계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지만, 과학을 잘 모르는 대중들을 쉽게 현혹시키기도 한다.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시리즈나 ‘혈액형별 성격설’, ‘창조과학’ 등이 대표적인 유사과학 사례이다. 잘못된 논리와 지식도 문제지만, 그것을 근거삼아 ‘**잘못된 가치관을 전달, 주입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특징2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

일례로,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혈액형별 성격설**은 대중들 사이에 일종의 상식처럼 유행하여 여러 가지 근거 없는 편견을 퍼뜨렸다. (‘소심한 A형’, ‘영뚱한 B형’ 등) **특히 이런 식으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 평가하는 것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20세기에 유행했던 유사과학의 일종인 **우생학**이 그 원류이다. 우생학은 ‘우수하고 건전한 형질,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몇 가지 형질에 따라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을 분류하였다. **결국 나치의 대량학살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벌어진 유색인종, 장애인, 성적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되었고, 그 악영향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특징3 편협한 가치관을 강요한다

창조과학은 근본주의적 기독교 신앙운동 중 하나로서, **지구의 나이가 46억년이 아니고 6000년 밖에 안됐다든지, 진화론이나 빅뱅이론이 허구라고 하는 등 자신들만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유사과학 분파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며, 일반 과학자들뿐 아니라 기독교인 과학자들조차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창조과학은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부적절하여 신학자들도 대체로 창조과학에 비판적이다. 성경해석에는 그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오직 자신들이 해석하는대로 성경을 믿어야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독선적인 주장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많다.

...

동성애 혐오 자료들과 창조과학은 서로 닮아 있다

창조과학과 동성애 혐오진영의 자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근본주의 기독교계가 자신들의 신념을 옹호, 강화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유사과학**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창조과학회 멤버들이 동성애혐오에 앞장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방증이다.**

이제 동성애 혐오 자료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문제점1: 편협한 데이터

동성애 혐오진영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의 연구결과만을 적당히
인용하며 왜곡된 논리를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일수록 일부
의 연구결과에만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 반면 학계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
해서 한 두 가지의 연구결과가 아니라 그간 보고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취합
하여 검토하는 ‘문헌연구’를 거친다. 그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
장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점2: 기초 지식의 부족

이들은 성적소수자 이슈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개
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엄연
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이들은 이것을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른다. 그래
서 남성동성애자는 ‘여성스러운 남성’, 여성동성애자는 ‘남성스러운 여성’인 줄
로 착각하며,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내용을 ‘동성애자’에 대한 논리전개에 적용
하는 등의 오류를 저지른다. 본인들이 성적소수자 이슈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며, 이러한 개념오류는 그들이 발간한 모든 자료에서 발견된다.

문제점3: 과학적 타당성보다 자기 주장이 우선

의학, 심리학계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동성애자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사회
의 차별과 혐오적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면 할수록 동성애
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객관적으로 연구해보면
이러한 결론에 어렵지 않게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혐오진영은 그저 동성
애를 고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고집한다. 그들이 정말로 관심 있
는 것은 과학적 타당성도 아니고, 동성애자들도 행복도 아니라 그저 동
성애가 틀렸다는 자신들만의 편협한 신념을 입증하려는 것 뿐이기 때
문이다.

속지 말자 유사과학.
빠지지 말자 동성애 혐오.



동성애 혐오진영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과학
의 이름을 빌려서 혐오를 확산하려고 시도할 것이
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과학’이란 그저 시작부터
잘못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사과학일 뿐이
다. 이들의 주장에 속아서 동성애 혐오에 빠지지 말
고, 성적소수자 이슈에 대한 바른 관심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이해를 쌓아나가야 한다. 차별 없이 모두
가 공존하는 세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발걸음일 것
이다.

편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의료인의 윤리다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원장)

요즘 인터넷에 하나의 유명이 떠돌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에게 로비와 위협을 가해서 정신질환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미국의 성적소수자혐오단체의 글을 번역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이 글은, 현대의 학 특히 현대의 정신의학과 그 진단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오해를 담고 있어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지적해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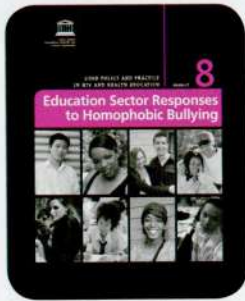
우선, 그 글에서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범주에서 삭제한 <DSM 3판>을 제정하는 과정이 논쟁적이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DSM 3판>을 제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논쟁적이었다. <DSM>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 DSM)’을 말한다. 1940년대 이전에는 정신과 의사마다 진단을 다르게 했지만, 각 나라의 의학교육과 의사 수련 과정이 표준화되고 질병분류 체계가 형성되면서 <DSM>도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2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던 <DSM>은 당시 정신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질환”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분류/나열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고 이런 경향은 2판까지 이어졌다.

<DSM>에 대한 재정비 작업은 1970년대부터 의학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가던 ‘근거중심의학’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정신의학에서도 이데올로기가 아닌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진단체계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 같은 흐름이 <DSM 3판>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정신과 의사의 개인적 경험 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상태에서 특정한 증상의 개수가 기준점 이상일 때 정신질환으로 진단하도록, 일종의 체크리스트 격인 진단가이드라인으로 <DSM 3판>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를 비롯 여러 정신질환과 관련하여서 격렬한 논쟁이 의학계 내부에서는 진행되었다. 따라서 <DSM- 3판>의 제정 과정이 논쟁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DSM 3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의학 전문가들은 항상 모든 질환의 진단에서 논쟁을 통해 합의를 이뤄왔으며, 이것이 의학 발전의 당연한 과정이기도 했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명백하다. 과거 어느 시기에 “질환”으로 정의되던 것이, 진단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해 어느 순간 “질환”이 아니게 되거나, 과거에는 “질환”이 아니었던 증상이 새로운 의학적 사실의 발견을 통해, 혹은 사회적 변화를 통해 “질환”으로 정의되는 일들은 비일비재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동성애가 정신적인 질병의 범주에 속해 있었으므로 정신병이 맞다”라는 주장은 현대의학의 발전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무런 의학적 의미가 없는 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치 “예전에는 수축기 혈압이 160mmHg이 넘어야 고혈압이라고 했었는데, 왜 지금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만 넘어도 고혈압이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의존성 인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라는 진단명을 붙이던 시기가 있었다. 의존성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체크해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보이는 증상들과 일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원인이 그 여성의 “의존성 인격장애”에 있는가? 아니면 그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의존적인 인격”의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인가?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정신질환이어서 동성애자가 자살률이 높은가?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동성애자를 자살로 몰고 가는가? 의학에서의 “관련성”은 그 자체로 “인과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우리가 만약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고자 한다면, 완벽한 변인통제가 필요하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낙인이 없는 사회적 환경에서야, 그들은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라고 주장해볼만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의사의 윤리에 있어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의 제 1원칙은 “Do No Harm”이다.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 “해”란 단지 치료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끼치게 되는 피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료전문가이면서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힌 진단기준을 고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관련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낙인찍기에 앞장서는 것, 그것도 “해를 끼치는 것”이다.



UNESCO(2012),
Education Sector Responses
to Homophobic Bullying.

2012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자와 같이 성적 특성이 달라 보이는 학생들,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 정체성이나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영국 교육부의
‘동성애혐오성(Homophobic) 학교폭력 조사’ 결과

“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력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

65%

전체 학교 응답자 중

75%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 응답자 중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었는가?”

언어적 폭력

82%

신체적 폭력

26%

(중복응답결과 포함)

출처: Stonewall, *Working with faith communities*, Stonewall education guide.

한국의 학교 역시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과 무관하지 않아

2005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병철·하경희 연구팀의
한국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험 조사 결과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폭력 노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52.9%)이 욕설 등의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20% 정도는 신체적인 폭력의 위협을 경험하거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 이상이 신체적인 구타나 무기로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은 매우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 정도는 강제로 자신의 성적 체성이 폭로되는 ‘아웃팅(outing)’과 그에 따른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출처: 강병철·하경희(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권 3호.

국내 동성애혐오성 학교폭력 사례들

학생에 의한 폭력 사례들

- ❗ 다른 학생들이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례자의 교과서와 책상, 의자 등에 “게이 **”라는 욕설을 적어놓고 폭행을 가하거나,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억지로 옷을 들춰 올리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였음.



학생인권조례 성적소수자 공동행동,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모음집』.

교사에 의한 폭력 사례들

- ❗ 서울 동작구의 C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계집애 같은 자를 뜻하는 영어단어 “sissy”를 언급하며 사례자를 sissy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였음.
- ❗ 안산시의 A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동성애자인 학생을 앞에 두고 “동성애는 미쳤거나 뇌가 없어서 하는 거다”라는 혐오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성적소수자에 대한 교사들의 폭력은 혐오발언 뿐 아니라, 체벌이나 정학 등 학교 규율을 통해 보다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이반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동성애자인 학생의 실명을 적어내도록 무기명 설문지를 돌린 뒤, 설문지에 이름이 적힌 학생들을 동성애자 리스트에 올리고,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취업추천서도 잘 써주지 않고 조금만 실수해도 벌점을 주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다시는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부모님께 동성애자임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함. 이 같은 교사 주도의 조직적인 폭력으로 인해 성적소수자 학생들은 자퇴를 하게 되기도 함.

“폭력피해와 아웃팅 경험이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동성애자들보다 자살위험성이 높다.”

(강병철·하경희(2005))

2011년 캐나다에서 실시한 ‘학교 내 성적소수자혐오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동성애혐오성 폭력이 우울, 불안, 자신감 상실, 위축, 사회적 고립, 죄의식, 수면장애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해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자살하는 일도 더 많다.”



Taylor et al.(2011), *Every class in every school*.
Toronto: Egale Canada Human Rights Trust.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성정체성 지지여부는 그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캐틀린 라이언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정체성을 이유로 가족에게 강한 거부감을 당한 성적소수자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성적소수자에 비해 8배 이상의 자살 시도율과, 6배에 달하는 심한 우울증을 호소했으며, 3배 이상의 HIV 및 성병 감염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들이 자녀의 성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지해 줄 경우 92%의 청소년이 자신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¹ <http://www.new-hope-recovery.com/center/2014/09/08/loving-families-help-lgbt-teens-avoid-addiction-suicide/>

동성애혐오성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들



영국

- 영국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폭력의 한 종류로 성적소수자혐오성 폭력을 제시하고, 해당 폭력을 당할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함.
- 국가 차원에서 성적소수자혐오성 폭력의 대상이 되는 학생을 위한 무료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며, 학교에서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문제, 온라인상에서의 동성애혐오에 관한 예방교육을 제공함².



미국

-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고등 교육구에서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폭력을 학생에 대한 주요한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피해신고 및 공식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³
- ‘게이·레즈비언·이성애자연합교육네트워크’(GLSEN)는 미국 내 성적소수자혐오성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학생주도의 국가적 행사로서 학교에서의 성적소수자 혐오성 비방, 괴롭힘, 성희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GLSEN 침묵의 날’,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학생클럽인 ‘게이·이성애자 연합(GSAs)’ 등이 있음.

² <http://www.each.education/>

³ Anaheim Union High School District, *PUPIL SEXUAL HARASSMENT POLICY*.



대만

- 2003년 제정된 젠더평등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에서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고, 젠더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교과과정에서 삭제하도록 함. 또한 학교 내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게이, 트랜스젠더, 임신한 학생들을 ‘취약한’ 학생으로 보고 특별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음⁴.



핀란드

- 핀란드 교육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함.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자료들은 각 학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음⁵.



엘살바도르

- 엘살바도르 정부기구 중 사회통합사무국(Secretariat for Social Inclusion)은 공공부문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한 대통령령 제56호의 시행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음. 이 사무국은 교육부와 함께 괴롭힘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동성애혐오성 차별과 괴롭힘 사건들에 학교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학교장들을 독려하고 있음.

⁴ Caceres C et al.,(2009), *Review of legal frameworks and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related to sexual diversity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Geneva: UNAIDS.

⁵ LGBT Youth Scotland(2011), *Challenging homophobia together, research report and a guide to developing strategic partnerships in education*, Scotland: LGBT Youth.

성교육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문경은(성교육 전문강사)

2015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르면 인간의 성은 단지 생물학적인 측면만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활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성역할이나 성가치관, 성윤리, 성규범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공통적이면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생물학적인 요소 이외에 많은 요소들이 포함된 종합적인(comprehensive) 개념으로 정의된다”고 적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교육은 성에 대한 신념, 태도, 가치관, 지식, 그리고 개인의 성행태까지 모두 다루어야 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는 현장에서 성교육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동성애에 대한 시각은 한정적이다. 대표적인 반응 두 가지는 ‘동성애를 잘 모르면서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태도’와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관심한 태도’이다. 두 반응 모두 적극적 이해는 아니다. 그럼에도 거칠게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 다수인 공간에서 상관없다는 태도는 오히려 온건하고 평화롭게 보이기까지 한다. 우리 사회의 동성애 혐오나 비난 수준은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높다.

반기문 유엔총장은 “동성애 혐오는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표현하며 평등을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냈다. 이 연설은 동성애자와 다른 성적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 반총장의 연설은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가이드 북의 발간에 맞춘 것이다.

가이드북은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성적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피해 조사 및 대응-을 실천함으로써, 성적소수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을 제거할 책임이 국가와 학교에 있다고 말한다.

특히, 네팔의 대법원과 홍콩 상소법원은 판결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

8 교육부, 2015, 학교성교육표준안 고등학교지도서

9 홍석목(2005). GOOD SEX& GOOD LIFE. HWB

10 2015.5.10. 최하얀기자, 프레시안 반기문 “동성애 혐오, 지독한 인권침해”...한국 첫 언급

성 차별에 반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대만의 젠더 평등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 2003), 엘살바도르의 사회통합사무국(Secretariat for Inclusion)의 대통령령 제 56호의 시행 모니터링이 좋은 사례로 꼽힌다. 영국은 ‘안전한학교정책(Safe School Policy)’이란 기존의 정책에 동성애혐오성괴롭힘을 포함하면서 종교단체와 폭넓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브라질은 ‘동성애혐오없는브라질프로그램(Brazil without Homophobia programme)’을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일랜드 학교는 ‘교육법(Education Act 2000)’과 ‘평등지위법(Equal Status Act 2000-2008)’에 입각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고 이 때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핀란드의 교육부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들의 참여 장려를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각국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학교 내 동성애혐오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은 동성애혐오를 없애는 것이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연대가 잘 이루어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내 옆집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사 올 수 있다. 이 때 내가 싫다고 ‘욕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다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거나 적어도 주변으로부터 평판이 나빠지게 된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도 이와 같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은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인데 이 가치관에 타인을 내가 가진 잣대로 평가하고 비난하거나 혐오하고 나의 주장대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조화를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성교육의 지향점이다. 다양한 우리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에 가까워짐을 기억하자.

11 2013.10.31,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탈 동성애’-‘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동성애는 성중독일 뿐 본인의 이성적 결단이나 노력, 의학적 처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될 수 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삶이 불행하며 동성애는 죄이므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동성애자들을 삶의 불행과 죄로부터 구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요?

‘탈 동성애 치유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은 그간 해외에서 ‘전환치료 (Conversion therapy)’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어 온 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주류 학계에서는 비과학적인 행위로 비판받아 왔다. **현재 주류 정신의학과 심리학, 행동과학, 사회과학계는 동성애도 다양한 성적지향 중 하나일 뿐이며, 전환치료는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어떤 주류 정신의학계도 전환치료를 위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오직 종교적 입장에 기반한 ‘탈 동성애’ 단체들만이 이런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이다.

‘탈 동성애 주장’이 지닌 세 가지 위험한 집착!

‘항문섹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 섹스’, 특히 ‘항문섹스’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성폭력 피해, 호기심 등으로 우연히 동성 섹스를 경험했거나 동성 섹스, 특히 항문섹스의 쾌감에 중독되어서 동성애를 ‘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섹스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기만 하면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성애가 단지 이성과의 섹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동성애 역시 단지 ‘동성과의 섹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천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여부에 집착한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동성애의 원인 규명이나 그에 따른 치료 시도 자체를 의미없는 연구로 결론지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다를 뿐, 동성애는 특정한 질병이나 중독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죄책감’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기대면’과 ‘회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특정한 종교의 입장에 따른 관점일 뿐이며 실제로 “동성애를 극복했다”는 고백들 역시 대부분 종교적 간증에 가깝다. 특정 종교의 입장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규정짓고, ‘치유’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탈 동성애’의 진실!

전문가들은 ‘전환치료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일종의 고문’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려는 ‘전환 치료’란, 동성간 성행위를 보여주면서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세뇌방식이었다. 심지어 뇌를 잘라내는 수술이나 성 호르몬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성과의 성행위를 억지로 시키기도 했다.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고쳐진다고 종교 기관에 감금하거나 심리 상담을 강요했다.

한국에서 ‘탈 동성애’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 이들은 근본주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성애연구및치료를위한전미협회(NARTH)’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권면적 상담’ 등의 종교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정신분석협회는 2004년에 ‘동성애연구및치료를위한전미협회’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미국심리학회와 미국상담학회는 전환 치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회원 단체와 의사, 상담가 등에게 전환 치료를 삼가도록 하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6년 세계정신의학협회 역시 전환 치료가 비과학적, 비윤리적이며 효과도 없고 유해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세계정신의학협회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끌림, 지향, 그리고 행동이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형태라고 판단한다. 협회는 인간 섹슈얼리티, 지향, 행동, 그리고 생활 양식이 여러 요인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협회는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요법들의 과학적 효과가 부재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치료’들의 해악과 역효과를 강조한다.

2016.3.22 성별 정체성 및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 끌림, 행동에 대한
세계정신의학협회 성명서 중에서

압도적인 수의 과학, 의학적 증거가 청소년들에게 행해지는 동성애 전환 치료는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불합리하고, 오히려 치료 대상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미 정부의 입장에서, 오바마 정부는 소수자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지하려는 노력에 지원을 보낼 것이다.

2015.4.8 미국 백악관 성명

전환치료는 낙인, 편견, 소외를 만들어왔다. 그래서 아이들과 성인들이 모두 자신의 성적지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치료를 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뉴욕심리학회 회장 디넬리아 로사Dinella Rosa

”



‘탈 동성애 상담’이나 ‘전환치료’는 기본적으로 자기혐오를 전제로 하며, 성별에 따른 성역할,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규범에 따를 것을 강요한다. 이를 위해 수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결국은 이성애자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과 주변을 속이며 살아가게 하며,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을 강제로 통제함으로써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전환치료를 부모나 주변인에 의해 강제로 받아야 했던 많은 이들이 이전에는 억지로 변화된 것처럼 살거나 극단적으로는 결국 자살을 택하기도 했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전환치료 피해 생존자 모임’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그 경험을 고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도나 종교적 상담으로 동성애를 치유할 수 있다는 ‘탈 동성애’ 주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성적소수자들과 특히 청소년들이 부모에 의해 강제로 기도원에 끌려가 거의 감금 상태로 폭력적인 기도를 당하거나 죄책감과 자기혐오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성애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죄’ 또는 ‘성중독’으로 간주하고 탈 동성애를 강조하는 이상 스스로를 부정하고 혐오하거나 가족, 주변인들에 의해 강제로 ‘전환치료’를 받게 되는 사람은 어디선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을 유발하는 전환치료!

2013년, 400명 이상의 전환치료 피해 생존자들을 조사한 결과 (*출처 ‘전환치료 피해 생존자들의 모임’ conversiontherapysurvivors.org/)

성적지향 전환치료를 경험한 응답자의

74%

“매우 위험하다” 또는
“내 삶을 파괴했다”고 응답

84%

치료가 끝난 지금도
여전히 악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

전환치료의 대표적인 후유증: 수치심, 우울, 자기혐오 강화, 두려움,
“나는 변화되지 못했다”는 자책감, 분노, 자아감의 상실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전환치료는 아이들을 해칩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환치료를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_전환치료 생존자 라이언 켄달 Ryan Kendall

ASK CA GOVERNOR BROWN TO PROTECT LGBT YOUTH FROM HARM BY SIGNING SB 1172! TinyURL.com/AskFor1172

전환치료 주도했던 기독교 성직자 그룹

“전환치료에 대해 동성애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I Am Sorry

JUNE 19, 2013 BY ALAN CHAMBERS

Three years ago, Leslie and I began a very public conversation with *Our America's* Lisa Ling, from the Oprah Winfrey Network (OWN) regarding some of our deeply held beliefs about Christianity and the LGBT community. Today, we have decided to carry this public conversation even further. While this conversation has and may well continue to be met with many different responses from supporters and critics, it is our desire to



미국에서 기도와 상담을 내세워 전환치료를 주도했던 기독교 성직자 그룹 ‘엑소더스 인터내셔널’도 지난 2013년 6월 “오랫동안 동성애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을 닫았다.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리더였던 앨런 챔버스 회장은 “교회가 오랫동안 문화전쟁을 했는데 이제 무기를 내려놓을 때”라고 말했고, 자신 역시 여자와 결혼해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동성애를 느낀다고 고백했다.



“자기혐오는 치료가 아니다”

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비하하고 혐오하거나, 가족과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죄의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탈 동성애’를 했다고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죄책감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단죄, 차별이 없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대신 죄의식과 자기 비하에 갇혀,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치유나 상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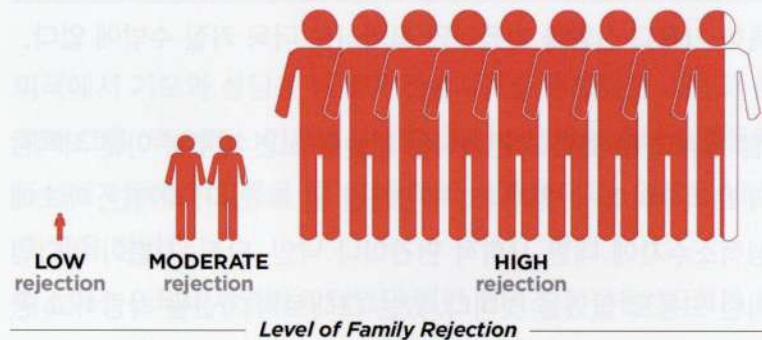
‘탈 동성애’가 아닌 사회의 변화를!

아래의 그림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 지에 따라 자살 시도의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정도가 심각할수록 자살 시도의 횟수도 크게 증가한다.

(출처 ‘Family Acceptance Project’ <http://familyproject.sfsu.edu/>)

Lifetime Suicide Attempts for Highly Rejected LGBT Young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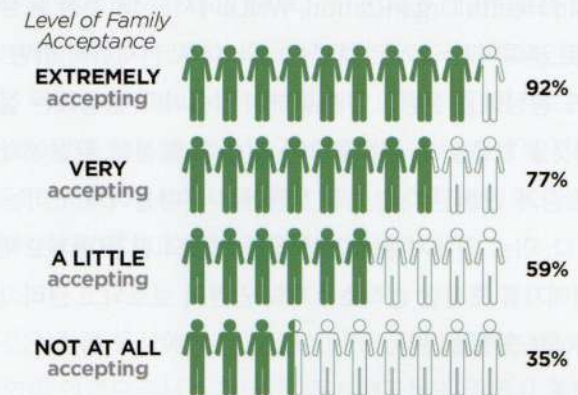
(One or more times)



Ryan, Family Acceptance Project, 2009

반면, 가족들이 성적소수자 청소년들을 존중해 주는 경우 자신이 성적소수자로서 행복한 성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크게 높아진다.

Youth Believe They Can Be A Happy LGBT Adult



Ryan, Family Acceptance Project, 2009

“동성애자의 삶이 불행하고 위험하므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탈 동성애’ 주장은 애초에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것은 ‘탈 동성애’가 아니라, 차별과 낙인을 없애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다.

동성애는 다양성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최인광 (정신의학박사)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는 '동성애가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또는 작업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동성애를 정신 질환의 범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도 더 이상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어떤 의학 교과서에서도 동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기에 그것을 치료할 이유는 없으며, 이성애, 양성애, 무성애와 동등하게 성적 지향과 관련된 다양성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성애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나 오해가 줄어들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권리가 확보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적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 의사, 교사, 종교인, 가족 및 주변 사람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또는 강제로 치료, 교육, 상담을 하는 전환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적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성적 다양성의 범주에서 이해하지 못한 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의학 적, 종교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신적 및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는 반윤리적, 불법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기 위해서 행해지는 전환치료는 다음의 두 가지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지향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며,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대개 아동기 초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인식하게 되는 10대 중반의 시기에, 성적 지향은 개인의 선택 영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치료를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를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외부적 요인을 통해 성적 지향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치료는 성적 지향을 바꾸는 것에 전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강제로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우울, 불안, 심리적 불안정, 자살 등을 증가시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점점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확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함에 따라서, 미국 전 주(州)에서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성적소수자 단체 및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성적소수자의 평등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로 당연히 인정받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바뀌어야만 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폐해와 문제점

21세기가 시작된지 한참 지나고도 지난 2016년,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남겨지리라 생각했던 주장을 여전히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성적소수자 혐오/차별 집단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학적’**이라는 **‘믿음’**을 지니고서 일련의 허황되고 위험한 주장들을 펼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 상당수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오용하고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1. 동성애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30대 남성끼리 함께 폭력하면서 애무하고 키스하는 장면과 남자 성기에 손을 대는 장면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영화에 대해 "성적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으나 **이달부터** 부장판사 주지법연구회 소회는 이 결정을 뒤집고 '인생은 아름다워'를 청소년 관람가로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소년 보호 권고를 무시하고 청소년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사업부의 이런 망정일과 달리야 규탄한다.
2. 동성애자 AIDS 감염자를 일인칭에 비해 730배
 • 동성애 프로그램에 참여한 AIDS 환자 350명 중 30%가 동성애 및 성관계에 의한 것이다.
 • AIDS 환자 중 약 절반이 동성애자이다.
 •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보다 평균적으로 3~4배 더 오래 살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없다.
 •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보다도 평균적으로 2배 더 오래 살아가고 있다.
3. 동성애는 전염적인 것이 아니다. 성관계에 의해 14~16세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지냈을 경우 동성애 연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랐을 경우 동성애 연도가 낮다. 동성애는 문화적, 환경적 요인

국기와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 ·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

대표적으로 이런 광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와 에이즈 그리고 죽음을 엮음으로써 동성애=죽음이라는 공식을 만드는 것이 혐오를 조장하는 그들의 오래된 그리고 해묵은 방식이다.

그들의 주장 1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

동성애 ≠ 동성간 성행위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 **동성애와 동성간 성행위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회의와 UN 등의 발표에서는 동성애가 아닌 동성간 성행위(MSM)¹로 표기한다. 동성애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동성간 성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혐오/차별 집단들이 국제적 표준에 따르지 않고 계속 동성애로 표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1 MSM(Man who have Sex with Man)은 동성간 성행위를 의미하며 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의미하는 동성애와는 다른 개념이다.

동성간 성행위 ≠ 위험행동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리고 상식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익히 알 듯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판단하여 감염시키지 않는다(못 한다)**. 사실상 '콘돔' 없는 모든 성관계는 에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지닌 '위험행동'이다. 그럼에도 혐오/차별 집단들이 특별히 동성간 성행위만 강조하는 것은 실제 다른 성행위가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진짜 위험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 2

동성애자 에이즈 유병률 5.5%?

한국 남성 동성애자가 일반인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183배 높다?

우선 유병률 5.5%는 1985년~1992년의 조사결과로 인용할만큼 신뢰받는 자료가 아니다. 이미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 유병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4년 서울대의 한 논문에서 언급된 우리나라 성인 유병률 0.03%를 단순 비교해서 183배 높다고 주장한다. **통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엉터리 계산 방법이다.**²

2 유병률을 계산하려면 먼저 모집단인 전체 남성동성애자의 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내 최대 규모의 남성 동성애자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수는 20만이 넘는데 많은 에이즈 연구에서 추정하는 인구수는 이보다 작다.

두 번째로 더 높다면 그것이 문제인가? 동성애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인 것'이다. 동성애는 개인이 선택하는 취향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더 취약한 인구집단이라면, 사회는 이들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주장 3

동성애 유행으로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급증?

동성애는 취미가 아니다. 따라서 '유행'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동성애자의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사회가 좀 더 관용적이며 소수자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대응과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에이즈 관련 연구자들은 그 원인으로 청소년들의 이전보다 활발해진 성적 활동과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성교육 그리고 낮은 콘돔 사용률을 지목한다.



에이즈 신규 감염자 증가와 동성애를 연결시키기 위해 억지로 끼워맞춘 대표적 사례. 에이즈 관련 주류 학계 어디에서도 저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 4

동성애와 에이즈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

1년 의료비 3000만원, 전체 4200~6300억,

전액 국가예산 지원?

국가가 에이즈 감염인에게 의료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³ 그리고 이 모든 지원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등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지원되는 것은 에이즈 치료제 등의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진료비이며, 지원되지 않는 것은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부분 그리고 간이영양증, 그리고 보험 적용되지 않는 치료제 등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에이즈 감염인의 수는 2014년 기준 5,462명이었다.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지원사업 예산은 2016년 기준 23억이다. 혐오/차별집단의 주장과 달리 감염인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예산은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어 비판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현실은 이러함에도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터무니없는 과장을 하며 공포 심만 부추기고 있다.

4 연합뉴스, 2015년 11월 12일,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개인신상 노출 논란"

23억원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과장하는 걸까?

6,300억원

에이즈 상담지원센터 : 1599-8105 / www.aids114.or.kr

예방만 11월
검거율 12.9

AIDS 바로 알기 캠페인

[에이즈] 바로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꾸준한 치료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말상적인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보혈이나 입맞춤을 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약수라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픈 곳이 다를 뿐!



전국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무료검사!



확실한 예방법은
콘돔사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무엇보다도 의료비 지원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복지다.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긴 치료 기간과 많은 금액이 드는 희귀 난치성질환,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국가는 현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인들 또한 에이즈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취업을 하는데 심각한 곤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의료비를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보다 그 금액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혐오와 차별의 폐해와 문제점

이렇게 성적소수자 혐오/차별 집단들의 에이즈에 관한 주장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문제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상임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나라는 발병해서 죽는 에이즈 감염자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에이즈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지 않으면 에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⁶

6 세계일보, 2013년 11월 26일, “에이즈 감염자들 발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이 더 많아요”

차별과 혐오는 그들이 그렇게 무섭다고 주장하는 에이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현재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올바른 예방법과 정기적 검사의 필요성, 그리고 감염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저들의 주장은 이 세가지 모두를 더욱 저해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을 에이즈에 더욱 취약하도록 만들고 있다. **진짜 위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인 것이다.**



SILENCE=DEATH

‘침묵은 죽음이다(Silence = Death)’는 2차세계대전 나치에 의한 동성애자 학살에 대한 문제제기로 처음 등장한 슬로건이다. 그리고 1980년대 에이즈 위기 당시 정부의 무관심 속에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자신의 가족,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누군가 죽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원인불명의 질병이 아니라 HIV 바이러스에 의한 후천적면역결핍증(AIDS)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만 있으면 당뇨병처럼 자신의 수명대로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슬로건은 불행히도 여전히 적절하다. 지금 한국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혐오와 편견이기 때문이다. 에이즈 인권운동은 침묵은 죽음이라는 슬로건에 다른 슬로건을 덧붙였다. ‘행동은 생명이다(Action = Life).’ 혐오와 편견에 맞선 행동은 생명을 구한다는 뜻이다.

아직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했던 시도와 실패의 역사

입법시도 (시기)	조직적으로 반대한 단체	결과
법무부 (2007~0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자반대국 민연합, 의회선교연합 등	무산됨
법무부 (2010년)	바른성문화를 위한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법무부에서 포기
김재연 의원 발의 (2012년)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 등	무산됨
최원식 의원, 김한길 의원 발의 (2013년)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 위한국민연대 등	발의 의원들이 법안 자진 철회
현재	예수재단, 기독교자유당	여전히 없음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과 거짓

왜곡과 실체 :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찬성법이 아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게 강제하는 법이라고?

아니다!

● 국내 상정되었던 법안들은 물론이고 해외의 차별금지법 입법례와 판결 내용에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여러 성적소수자 정체성의 정상성(normality) 여부’에 대해 어찌 판단해야 한다거나 이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언급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동성애가 정상이나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차별 행위이다.

정말로 ‘동성애 차별금지법=동성애찬성법’이란 게 있는가?

그런 법은 없다!

●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과 등치시키면서 마치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차별사유 항목만 담겨있는 것처럼 법안의 성격을 호도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이는 법안의 성격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법안을 반대하는 데 쓸 수 있는 손쉬운 논지를 재생산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동성애를 죄라고만 말해도 징역을 산다고?

아니다!

● 차별금지법에는 형법적인 의미로서의 처벌 조항이 없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기관, 공적 서비스와 행정 서비스의 공간에서 차별받지 않게끔 예방/시정/구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차별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제약과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처벌이라고 호도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 입법 과정에서 실제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지점은 벌금과 징역 같은 형법상의 처벌 쪽보다는 기업 등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쪽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있다!

●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 이후, 법 제정 반대 세력의 실질적 주체 중 하나인 재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로비는 다방면으로 강하게 이루어졌으나, 겉으로 드러나고 언론에 나타나는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은 종교계(특히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계)만 등장할 뿐이었다. 종교계가 내세우는 ‘동성애 반대’는 대중용 얼굴마담일 뿐이고, 재계 측 입장인 ‘고용과 재화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 적용에 따른 업계의 불이익’이 실질적인 반대의 이유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왜곡되어 유포되는 허위 사례들과 진상

Oregon bakery that refused same-sex couple owes \$135,000 in damages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 ruling comes after Portland-area shop Sweet Cakes by Melissa would not bake wedding cake, but bakers could appeal



Sweet Cakes by Melissa refused to bake a wedding cake for a same-sex couple. Photograph: Brian Beck/MPH/Getty Images

[왜곡된 주장 1]

미국 오레건 주에서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에 1억 5천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사실은]

● 2013년 오레건 주에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던 부부는 손님이 케이크를 주문하자 성경의 레위기를 인용하며 동성 결혼식에 쓸 케이크는 팔 수 없다고 거부했다. 논란이 생기자 손님의 이름과 주소까지 공개해 결국 살해 협박에 시달리도록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노동·기업인권국과 행정 법원은 제과점 운영자에게 13만 5천 달러의 피해 보상을 명령했다. 단순히 동성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오레곤 주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오레곤 주의 ‘공공서비스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왜곡된 주장 2]

미국 아이다호에서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180일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실은]

● 정확히 말해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의 처벌이 내린 것이 아니라, 180간의 구금이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앞으로 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법원이 내린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목사’라는 점에 있지 않았다. 이들이 운영하던 곳은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이 아니라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영리 사업체’로 등록된 곳이었다. 그래서 주택/고용/공공서비스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의 조례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났다.



<출처: 올바른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왜곡된 주장 3]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 공공장소나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악법이다.

[사실은]

● 공공장소나 교회에서 단순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잡혀가는 일은 없다. 차별금지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 쓰인 전단지를 돌리다가 잡혀갔다고 종종 언급되곤 하는 해외의 사례 역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전도금지구역에서 전도용 전단지를 돌린 것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는 무관한 별도의 일이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좋은이유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 실천을 위한 법적 장치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실천할 것을 언명하는 실천법이자 인권기본법이다.

교육과 사회 등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차이와 다양성을 지키면서도 평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다.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 교육의 효과가 큰 제도이다.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2003년부터 정부가 나서서 준비해 왔던 법이다.

유엔을 비롯 여러 국제기구 및 인권기관의 권고 등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맞추는 필요 조건이다.

모두를 위한 사랑과 평등의 발걸음으로 시작된 퀴어 퍼레이드

1960년대 뉴욕. 경찰들은 상납금을 챙기기 위해 종종 게이바를 급습해 폭언을 퍼붓고 본보기로 몇 명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잡아갔곤 했다. 남자가 화장을 하거나 치마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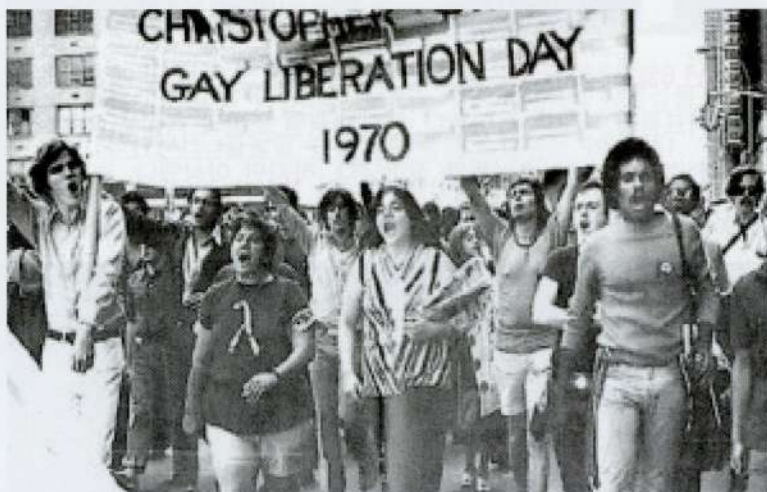
1969년 6월 27일 금요일 밤, 작은 게이바였던 ‘스톤월 인’에 8명의 경찰이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조롱과 욕설을 퍼부으며 신분증 검사를 하고 손님들을 끌어냈다. 하지만 이상했다. 늘 힘없이 당하기만 하던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 게이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당황해서 전투 경찰을 투입했고, 시위는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다. 사흘동안 시위는 계속되었고 미국 전역으로 동조시위가 퍼져나갔다. 이 역사적 사건을 ‘스톤월 항쟁’이라고 부른다.



1년 후인 1970년 6월 28일, 뉴욕의 인권활동가들은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행진’을 기획했다.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로서 당당하게 존재를 드러내고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행진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같은 행진이 열렸고, 그 다음 해엔 런던과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같은 행진이 개최되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부터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도 퍼레이드가 열리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2000년부터 퀴어퍼레이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억압을 받는 소수자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평화롭고 즐거운 축제라는 형식을 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행진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자랑스럽다’는 것을, 또한 ‘서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함께 살아가자’고 요청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기에 가능한 일이다.



퍼레이드의 수천. 수만 명의 참가자 중에 몇 명의 '퍼포먼스'를 일부러 혐오스럽게 찍은 뒤, 그 사진만 유포하면서 퀴어퍼레이드를 알몸/광란/음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맥락을 지우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일 뿐이다. 서울 광장에 와서 직접 보고, 함께 행진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편견을 버리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



저는 크리스천 동성애자입니다

홀릭(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성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한 시점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성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목회자 집안이었고 교회 전도사님이신 어머니께 저는 커밍아웃 하였습니다. 그때 되돌아 온 말은 “지옥에나 가라”였습니다. 그 말을 가족에게서 듣는 심정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매일 울면서 기도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과 기독교 사이에서 끝없는 자아분열적 시간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 오면서 저는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커밍아웃 하기 전의 삶도 그 이후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나를 버리실 거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벼랑 끝에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삶의 방향을 알려 주셨고, 저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나의 나뭇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 저의 정체성을 이제는 받아들이시고 저의 삶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나 레즈비언이라고 말한 이후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은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이며 엄마가 바라는 남자친구가 없을 뿐 그저 다른 삶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권리가 아닌 차별과 폭력을 받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동성애자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요.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죄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몸을 판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시몬의 동생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문둥병 환자였으며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와 죄인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구 편에서 있을까요? 동성애자라고, 트랜스젠더라고 정상이 아니라고 성경의 율법 중심으로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의 일부 보수 기독교인처럼 보이지 않는 돌을 던지고 더럽다고 욕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상처받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은 분명 서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신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자신의 편협한 신앙의 잣대로 성적소수자들에게 잔인한 욕설과 비방과 혐오와 폭력을 멈추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아니다

“동성애를 찬성할 권리가 있다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도 있다”

‘동성애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저마다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 자체는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아니다.

‘동성애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다.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기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적 지향’에 따라 사람을 구분 짓고, 집단의 우열을 나누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사회 질서, 차이를 차별로 위장하는 그 질서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동성애를 보지 않을 권리”는 권리가 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

“혐오스러운 퀴어 축제를 보고 싶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시요”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동성애를 보지 않을 권리”는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를) 드러내지 말라”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들을 누군가에게는 하지 말라는 부당한 강요이다.

뉴욕 대학교 헌법학 교수인 켄지 요시노^{Kenji Yoshino}는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커버링이라 하며, 이를 “숨겨진 공격”이라고 분석했다.

‘동성애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는 폭력, 혐오와 다를 바 없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 대한 존중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모로오카 야스코는 “**표현의 자유는 제약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차별받는 집단을 침묵시키고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

혐오 표현은 폭력, 증오, 차별을 선동하는 욕설, 모욕, 위협, 괴롭힘의 표현²이다.

“동성애는 성중독의 일종으로 끊기가 아주 어려운 지독한 현상이다”

- 이요나 목사

“동성애를 국가 질병으로 분류하고 치료하겠다” - 전광훈 목사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내세우는 위의 문구는 ‘동성애자’의 존재, 정체성, 관계, 사랑을 삭제한 채 오로지 ‘성적 행동’으로만 왜곡하고, ‘위험하거나 병적인 것’으로 과장하여 동성애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다.

1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마·이혜진 역, (2015). 『증오하는 입』, 오월의 봄, 194, 196, 197쪽.

2 Sandra Coliver, C. Kevin Boyle, Frances D'Souza. 1999. *Striking a Balance: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and Non-Discrimination*



캐나다 1977년 고용,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권,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캐나다인권법을 제정하였다. 혐오 발언 관련 조항³은 다음과 같다.

- 12조 2-⑦. “a. 차별을 표현 또는 함의하거나 차별을 의도한다든지, b. 차별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의도가 있는” 표시를 일반 주민에게 출판·전시하거나 출판·전시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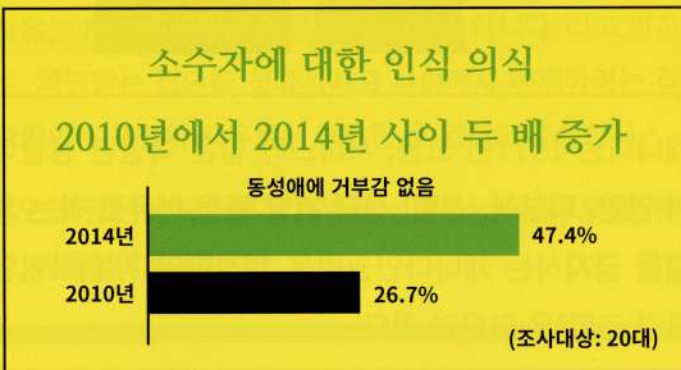
- 13조 2-⑧. “개인 또는 집단이 증오 혹은 모욕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전화와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전달시키는 것”을 증오표현으로 금지한다.

3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마·이혜진 역, (2015). 『증오하는 입』, 오월의 봄, 1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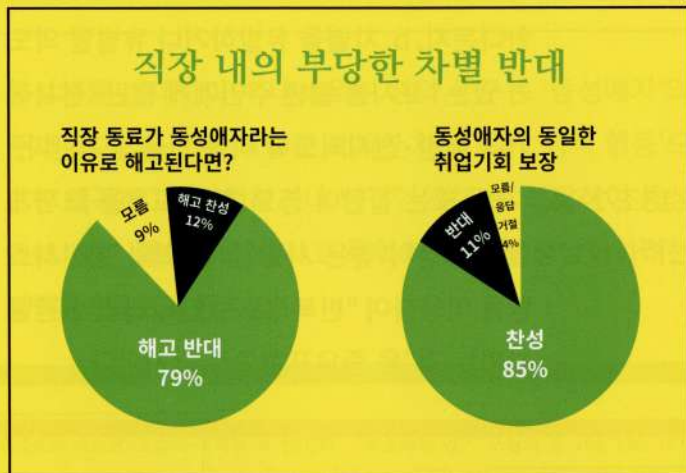
한국인의 인식 변화, 이미 시작되었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 한국 유권자와 이슈Ⅲ : 성소수자(LGBT) 인식(2015년 4월 1일)〉



〈한국 갤럽 - 동성애 관련 인식 조사(2014년 12월 2주)〉

성적소수자가 대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소수자들을 보다 인간답게 대접하는 것은, 비성소수자인 여러분의 몫을 뺏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내용을 늘리는 일입니다. 소수자에게 보다 인간다운 세상은 곧,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인간의 권리를 향한 더 큰 파이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합니다.

성평등,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를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맞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성소수자는, 여성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면서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성애를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자신의 성을 드러내면 안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성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부차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을 보다 제대로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가 혐오받지 않는 나라, 우리 모두가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누군가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세상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혐오당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요. 그것이 70년간 여러분들이 어렵사리 만들어온 이 나라의 '국격'에 맞는 일입니다.



심상정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2017.04.25.)



소크라테스 빌레가스 대주교: “동성애는 죄악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나님께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구원에 배제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2015.1.12)



버락 오바마 (미국 44대 대통령):
 “보편적 인권은, 어떤 이가 LGBT라는 이유로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성애가 문화적으로 낯설어 자기가 속한 사회와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LGBT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인권의 보호가 보편적 가치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015.11.10.)



엘렌 페이지 (영화배우): “여러분은 서로 조금만 덜 못되게 굴어도 세상이 훨씬 나아지리란 믿음으로 여기에 모였어요. 서로의 차이점을 공격하는 대신, 5분만 투자해 서로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쉽게,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죠.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괴롭힘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죠.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세상을 바꿔주세요.” (2014.2.14.)